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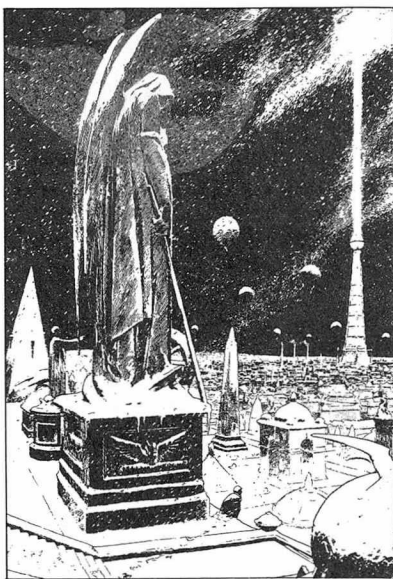
예언자로서의 작가의 운명

“나는 사후(死後) 백년에 남을 시(詩)를 쓰려고 노력할 수는 없지만, 작품이 끝난 후 반년 정도의 앞을 예언할 만한 시는 쓰고 싶다. 반년 정도의 예언이지만 여기에도 피해가 많다. 원래가 예언자란 들어맞을 때는 상(賞)은 안 주고 안 들어맞을 때는 화형(火刑)을 받는다. 아냐 그는 들어맞을 때도 안 들어맞을 때도 한결같이 화형을 당하게 마련이다.” (김수영, 「푸리턴의 초상(肖像)」, 민음사, 1976)

뮤즈 대신 시대정신을 시의 신으로 모셨던 ‘운몽의 시인’ 김수영. 그는 시대를 이월하는 작품을 쓰자 혈투를 감행하는 시인은 곧 가시면류관을 쓴 예언자라고 말했다. 시인을 ‘저주받은 운명’이라고 명명했던 보들레르의 일그러진 표정이 겹쳐지는 대목이다. 저 창공을 제압하지만 정작 이 땅 위에서는 뒤뚱거리며 돌팔매를 맞아야 하는 조화웅(알바트로스)과 화형장에서 마녀의 절대고독은 님은 구석이 많다. 어쨌든 한치 앞을 내다보기 힘든 이 안개의 세상에서 그들의 작품은 “백년에 남을” 만하다.

범박하게 말하자면, 미래를 예언하는 인물들은 무당 아니면 현인의 유형에 속한다. 둘 모두에 양다리를 걸치기도 한다. 「삼국지」의 제갈공명이나 1968년에 발족한 한국미래학회 회원들은 ‘현인’의 범주에 든다. 반면에 온갖 「점서(占書)」의 주변에서 밥을 빌어먹는 이들은 무당에 해당한다. 19세기에 ‘징후학’이 탄생하고, 1970년대에 구미에서 ‘미래학’이 출생신고를 마친 뒤에는 예언보다는 예측에 세인의 주목이 집중되었다. 90년대 들어 우리나라에서도 쏟아져 나오는 ‘트렌드책’ 들은 아예 과학의 영역에 속한다.

최근 프랑스에서는 1863년에 사라졌다가



「20세기 파리」(김남주 역, 한림원)에 나오는 삽화. ‘예술의 도시’ 파리가 흡사 우주전진기지 같다. 루브르 박물관 한복판에 세워진 조각품의 제목은 ‘산업의 뮤즈’일 것이다.

130년만에 발견된 한 소설이 1960년대 파리의 모습을 비교적 정확히 예언했다서 화제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해저 2만리」 「80일간의 세계일주」를 쓴 쥘 베른(1828~1905)의 「20세기 파리」가 그것으로, 자동차·모노레일·비행기·우주여행·팩시밀리·텔레비전 등의 문명의 이기를 소재로 등장시킨다. 문명은 번성하되 문화는 소멸하고, 자연과학은 대립받되 인문학과 인문주의는 씨가 말라버린 ‘썰렁한’ 현대세계를 암울하게 묘사하고 있다.

그 소설의 주인공 미셀 제롬은 시인 지망생. 그는 파리의 모든 서점을 뒤져도 빅토르 위고의 작품을 구하지 못해 절망스러운 표정을 짓는다. 금융 관련 장부를 “세계를 품고 있는 완벽한 책”이라며 문학에 “들린” 자신의 신세를 장탄식하기도 한다. 「20세기 파리」는

‘미래과학소설’이지만, ‘시대를 잘못 만난 시인의 운명’에 대해 길게 할애한다는 점에서 문학의 위기시대를 진즉 감지한 작가의 고백록으로도 읽을 수 있다. 제13장의 제목은 “20세기에 예술가가 얼마나 쉽사리 굶어 죽을 수 있는지에 대하여”이다. 소설 속에서 “40명의 프랑스 아카데미 회원들이 뽑은 서정시”의 전문은 이렇다.

“거대한 보일러의 작열하는 튜브 속을 보니/석탄은 불을 뿜는 불꽃을 지니고 있나니!/이 달아오른 괴물은 당할 자가 없도다!/이 기계는 전율하는 표면 아래서 포효하리니,/수증기와 더불어 80마력의 힘으로 나아가도다./운전사가 무거운 기어 레버를 넣네,/이중 피스톤의 활판(滑瓣)이 열리네/두터운 실린더 속으로 재빠르게 소리내며 움직이며/바퀴가 돌아가네! 속도가 붙네!/경적이 울리네! 만세, 크램튼 시스템 기관차여!”

주인공 미셀의 유일한 동반자는 최후의 전근대인(前近代人)인 삼촌 위그랭이다. 그 삼촌은 도서관 속의 박물관이 되어버린 문학서가의 담당사서이다. “무덤을 지키는 무덤지기”일뿐, 고고학자는 되지 못한다. “(옛 작품의) 발굴은 금지되어 있다.”

쥘 베른가 20세기의 모습을 얼마나 정확히 예언했는지는 독자에 따라 다른 평가가 나오겠지만, ‘예언서’로서의 「20세기 파리」는 ‘화형’을 받았던 작품임에 분명하다. 작가의 전속출판사인 ‘아세트’의 명편집자 에첼은 그 작품의 출판을 거절했던 것이다. “아무도 믿지 않을 예언을 하셨더군요.”

앞으로 4, 5년 후면 1999년, 2000년이다. 예언컨대, 1999년에 지구가 멸망하리란 예언을 한 노스트라다무스의 책과 ‘종말론’ 관련 책들이 또 한차례 쏟아져 나오지 않을지...

출판저널

통권 제162호 / 1995년 1월 20일 발행

발행인—정진숙
편집인—전병석
인쇄인—이일수
편집위원—권영빈 김문환
 송상용 이중한
편집주간—이승우
편집장—김지원
기자—정혜옥 이성수
 김중식 배은희
디자인—윤정자
사진—김홍진

업무차장—윤동호
업무·광고—이희천 김유희
 김동필

(재)한국출판금고
상임이사—최학수
총무부장—이정수
전화 732-1434~5

등록 1987년 6월 9일—다 435
대체구좌 010041-31-2826477
발행처—(재)한국출판금고
인쇄처—평화당인쇄주식회사
전산사식—타이포아

출판저널—110-190 서울 종로구 사간동
105-2 출판문화회관 2층
전화 732-1431~3 FAX722-1174

「출판저널」은 신문윤리강령 및 주간신문윤리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출판저널」 정기구독 안내

매월 5일과 20일자로 발간되는 「출판저널」은 정기구독으로 받아 보시는 것이 빠르고 편리합니다.

본사의 지로용지로 1년차 구독료 30,000원을 송금하시면 입금된 날짜의 해당호부터 맥이나 사무실로 우송해드립니다. 본사의 지로용지가 없으신 분은 전국 각 은행(농협·수협·축협 포함)의 A지로용지에 본사 지로번호 3008669와 금액, 주소, 성명을 명기하여 붙임하거나 우체국 대체구좌 010041-31-2826477을 이용하십시오.

공급 : 한국출판협동조합

서울 마포구 신수동 448-6
716-5616~9, 716-5621~3

왜 이토록 엄청난 의학적 발견이 묻혀져야 했는가?

“도롱뇽이 할 수 있다면 인간도 할 수 있다!”

도롱뇽은 잘려나간 팔다리는 물론 심장까지도 완벽히 재생해 내는데, 인간은 그럴 수 없는 것일까? 30년에 걸친 집념의 연구 끝에 로버트 베커 박사는 인체도 재생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하면서, 여러 가지 충격적인 사실들을 밝힌다. 이 책 《생명과 전기》는 그 연구의 충실한 기록인 동시에, 한 응고집 의학자가 타성에 젖은 기성의학계와 정부를 상대로 외롭게 벌인 드라마틱한 투쟁의 기록이다. 인류에게 복음이 될 수도 있는 그의 발견을 기성의학계는 왜 이단시했으며, 정부와 軍 당국은 왜 암암리에 연구의 진행을 방해했을까?

- ◆ 재생과 치유, 생명현상의 비밀을 푸는 열쇠는 바로 전기!
- ◆ 침술, 초감각, 양의 메커니즘이 새롭게 규명된다!
- ◆ 생명의 기원은 반도체성 유기물, 뼈는 압전 소자로 되어 있다!
- ◆ 지금 핵무기보다 더한 위험이 우리를 감싸고 있다!...

로버트 베커 외/공동철 옮김/값 7,500원

정신세계사 전화 733-3135/팩시 739-8791

생명

과

전기

신간!

THE BODY ELECTRIC

인체의 재생·치유·생명현상의 비밀을 푸는 열쇠를 찾아서